

건조물 유형문화재 보존에 관하여 (建造物 有形文化財 保存에 관하여)

尹 張 燮

(文化財委員會 第1分科委員會)

1985年 5月 2일에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가 확장(擴張)되어서 각전문분야(各專門分野)에 따라 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가 설치(設置)되어 그 기능(機能)에 상응(相應)하게 우리나라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을 위한 시책(施策)과 실무(實務)에 대한 자문(諮問)을 할 수 있게 위원회(委員會)위 기구(機構)가 발전(發展)된 것을 경하(慶賀)하여 마지않는다.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 분야(分野)를 주로 담당하게 되는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에 소속하고 있는 위원(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인 건조물(建造物)의 보존(保存)을 위한 평소(平素)의 생각과 희망(希望)을 피력해 보고자 한다.

문화유산(文化遺産)은 「인류(人類)의 역사상(歷史上), 문화상(文化上), 예술상(藝術上), 가치가 많은 것 및 고고자료(考古資料)」라는 매우 포괄적(包括的)인 의미(意味)를 내포(內包)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현행(現行)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에서는 문화재(文化財)를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민속자료(民俗資料)의 4개(個)의 범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건조물(建造物),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古文書), 회화(繪畫), 조각(彫刻), 공예품(工藝品)등의 유형(有形)의 문화적(文化的) 소산(所産)으로서 역사상(歷史上) 또는 예술상(藝術上)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準)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건조물(建造物)의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범위는 매우 크며 그 보존(保存)과 관리(管理)가 보다 중요(重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觀點)에 따라 문화공보부(文化公報部)에서는 건조물(建造物)을 주로 다루게 되는 분야(分野)를 전문화(專門化)하여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를 새로 설치(設置)한 것이라 생각하며, 앞으로 정부당국(政府當局)에서는 건조물(建造物)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분야(分野)에 보다 더 많이 역점(力點)을 두고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폭넓고 뜻있게 문화재(文化財)의 보존(保存)과 관리(管理) 사업(事業)을 추진하여 줄 것이라 생각하고 큰 기대(期待)와 희망(希望)을 품어보게 된다.

필자는 건축학(建築學)을 전공(專攻)하는 사람임으로 第1분과위원회(分科委員會)의 분야(分野)중에서도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에 대해서 주로 언급(言及)해 보고자 한다.

옛적부터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 건축(建築)은 인간활동(人間活動)을 수용(收容)하는 환경(環境) 및 무대장치(舞臺裝置)이며 인간활동(人間活動)의 골격(骨格)을 만드는 틀로서 인간생활(人間生活)의 바탕을 이루어 그의 실존(實存)을 의미(意味)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인류(人類)는 건축(建築)의 도움으로 공간(空間)과 시간(時間) 속에서 그들의 모든 활동(活動)의 근거(根據)를 갖게 되므로 건축(建築)은 인류(人類)의 실존적(實存的) 의미(意味)에 대

한 역사(歷史)를 반영(反映)하는 거울이라고 비유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요(重要)한 건축문화재(建築文化財)와 건축문화(建築文化)의 유적지(遺蹟地)들은 잘 보존(保存)하고 관리(管理)하여서 이것들이 현대사회생활(現代社會生活)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문화유산(文化遺産)들을 다음 세대(世代)로 연면(連綿)하게 계승(繼承)하여 줄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당시대적(當時代的)인 중요한 책무(責務)라고 하겠다.

우리 나라의 건축문화적(建築文化的)인 유산(遺産)들은 우리 조상들이 옛적부터 전승(傳承)하여 내려온 문화적(文化的)인 소산(所産)으로 그들의 생활(生活) 전반(全般)과 이념(理念) 및 가치관(價値觀)을 입증(立證)하여 주는 실증자(實證者)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건축문화유산(建築文化遺産)들은 세계(世界)속에서 한국문화(韓國文化)의 특수성(特殊性)을 비교적 잘 밝혀주며, 현재(現在) 우리 문화(文化)가 놓여져 있어야 할 위치(位置)의 당위성(當爲性)과 미래(未來)의 방향(方向)을 지시(指示)하여 주는 내용을 포용(抱容)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의 건축환경(建築環境)과 문화(文化)는 역사(歷史)의 “프로세스”에서 생긴 산물(產物)이며 문화적(文化的)인 자원(資源)으로서의 가치(價値)도 또한 매우 큰 것이다. 건축문화(建築文化) 자원(資源)은 재생산(再生産)이 거의 불가능하며 이와 같은 문화적(文化的) 자원(資源)의 특성(特性)들은 한국문화(韓國文化)의 고유성(固有性)과 한국인(韓國人)의 가치관(價値觀) 및 세계관(世界觀)을 표출(表出)하고 상징화(象徵化)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제발전(經濟發展)에 수반되는 도시개발(都市開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면(當面)한 피상적(皮相的)인 경제성 편의성(便宜性) 및 효율성만을 제고(提高)시키기 위해 기존(既存)의 노후(老朽)된 가로(街路)를 무심(無心)하게 철거하고 현대적(現代的) 건물을 신축(新築)하는 것에만 주안점(主眼點)을 둔 도시재개발사업(都市再開發事業)과 재(再)정비 사업(事業)들은 역사적(歷史的)인 가치를 지닌 많은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들을 파괴(破壞)하며 훼손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問題)에 대한 관심(關心)은 1960년 후반기(後半期)부터 전세계적(全世界的)으로 제기(提起)되기 시작하였으며 각국(各國)마다 도시내(都市內)의 문화재(文化財) 및 그 주변(周邊) 가로경관(街路景觀)의 보존(保存)에 관한 연구(研究)와 건축환경(建築環境)의 전통성(傳統性) 회복(回復)을 위한 연구(研究)와 사업(事業)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예외(例外)일 수가 없으며 5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의 성공적인 진전(進展)에 힘입어 경제개발기(經濟開發期) 동안 현재(現在)에 이르기까지 급진적(急進的)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개발사업(都市再開發事業)에 있어서 문화재(文化財) 인식(認識)의 소홀과 무관심(無關心) 및 재정부족(財政不足) 등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건조물(建造物)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들이 철거되며 훼손되고 있는 사례(事例)를 많이 볼 수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나라도 현금(現今) 구미(歐美)의 선진각국(先進各國)에서 연구(研究) 시행(施行)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존(既存) 건조물(建造物)의 문화적(文化的) 유산(遺産)을 적극적으로 보존(保存)하면서 균형(均衡) 있게 도시개발(都市開發)을 추진하여 나아가는 방향(方向)으로 시책(施策)을 강구(講究)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유럽 제국(諸國)에서는 건조물(建造物)을 단일한 문화재(文化財)로서만 규정(規定)하지 않고 건조물군(建造物群)으로 지정(指定)하여 보존(保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와 같이 단일건물(單一建物) 위주로 문화재지정(文化財指定)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건축물군(建築物群) 뿐 만 아니라 이에 부수된 공작물(工作物)들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서

군집체(群集體)로 하여 건조물(建造物)을 집단적(集團的)으로 지정(指定)하여 보존관리(保存管理)하는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건조물(建造物)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보존(保存)과 관리(管理)에 관한 희망(希望)을 언급(言及)하여 본다면 우선 첫째로 보존(保存) 대상(對象) 건조물(建造物)의 범위(範圍)를 확대(擴大)하여야 할 것을 제언(提言)한다. 이를 위하여서 조사(調查)와 연구(研究)가 선행되어야 하며 역사적(歷史的) 유지지(遺址地), 개개의 건물(建物), 기존(既存) 가로(街路)의 현황(現況), 자연환경(自然環境)과의 연관성(連關性), 정원(庭園), 도시(都市) 및 취락구조(聚落構造), 및 실내가구(室內家具)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포함(包含)시켜서 의미(意味)가 있는 상징적(象徴的)인 건조물(建造物)에 연관된 모든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들은 가능(可能)한 한 많이 보존(保存)하도록 노력(努力)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홍보(弘報), 교육(教育)활동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건조물(建造物) 문화재(文化財)에 대한 훼손 원인(原因)을 구명(究明)하며 그 대책(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문화재(文化財) 훼손의 인자(因子)로는 경년현상(經年現象)에 의한 노후화(老朽化), 공기오염(空氣汚染), 진동(振動)등에 의한 시간(時間)경과에 따른 영향(影響)과, 홍수(洪水) 및 지진(地震)등 자연적(自然的)인 파괴현상이 있다. 다음에 주가 되는 파괴행위는 인간(人間)에 의한 것으로 전쟁(戰災), 무지(無知), 문화(文化) 파괴행동, 종교(宗教) 및 종족(種族) 관습의 편견(偏見)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와 같은 요인(要因)의 규명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건물기능(建物機能) 상실(喪失)에 의한 악화(惡化)현상을 들 수 있다. 즉 건조물(建造物)의 경제적(經濟的)인 목적이 상실되는 것, 새 생활(生活)조건에 맞도록 만든다는 구실(口實)로 제거(除去)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狀況)에도 대응(對應)하여서 건조물(建造物)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기능(機能)을 부여하여 그 용도(用途)를 재생(再生, recycling)시키는 방법(方法)이 권장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번에는 문화재(文化財)의 보호방법(保護方法)을 적절화 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문화적(文化的)인 가치가 있는 건조물(建造物)은 어떤 것이든지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금지(禁止)되는 법적(法的)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문화재(文化財)의 파괴와 훼손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즉 역사적지구(歷史的地區) 안에서의 신축건물(新築建物)의 적절한 억제 조치, 도시(都市) 및 농촌지역(農村地域)의 경관(景觀) 변화(變化)의 감시 및 지도(指導), 도시(都市) 및 지역계획(地域計劃)의 조정(調整)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의적(任意的)인 도시계획(都市計劃) 및 개발(開發)을 조정하고 지나친 복원사업(復元事業)은 불가(不可)함으로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소유주(所有主)에게 유인요건(誘因要件)(incention)을 주어서 자발적(自發的)이며 적극적으로 문화재(文化財)를 보존할 수 있는 시책(施策)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넷째번에는 사회적(社會的)인 통합(統合)된 보존방법(保存方法)이 채택되어야 한다. 복원방법(復元方法)의 강제성(強制性), 주민(住民)의 협조없는 일방적인 퇴거(退去)강요등은 개선(改善)되어야 하며 주거(住居)와 안락(安樂)한 사회생활(社會生活)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는 주민(住民)들을 이해(理解)시키고 그들의 참여(參與)를 획득할 수 있도록 강구(講究)하여야 한다. 문화재(文化財)를 보존(保存)하는데 있어서는 국민(國民) 개개인들이 건조물(建造物)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自發的)으로 협조(協助)할 수 있도록 국민(國民) 전체의 공론(公論)을 형성(形成)하여 그 뒷받침을 받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또한 특히 강조(強調)되어야 할 것은 문화재(文化財) 보존(保存)을 위한 조사연구사업(調査研究事業)의 확장(擴張)과 지속적인 재정적(財政的) 지원(支援)을 하여야 한다는 점(點)이다. 특히 바람직한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의 시책(施策)의 수립(樹立)과 사업발전(事業發展)에 따른 지속적인 조정(調整)이 필요하며 충분한 예산(豫算)의 투자계획(投資計劃)이 뒷받침되어서 문화보존(文化保存)의 분야(分野)에서도 우리 나라가 선진국(先進國)을 지향(指向)하는 국가로 부각(浮刻)되어지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언(附言)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위원회(文化財委員會) 자문기능(諮問機能) 활용(活用)의 적극화(積極化) 내지는 적절화를 기대한다. 즉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들의 의견(意見)을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드려서 시책(施策)에 많이 반영(反映) 할 수 있게 되도록 문화재보존(文化財保存) 관리(管理) 담당자들은 종전(從前)보다도 더 많이 열린 마음을 갖고 임함으로서 문화재보전(文化財保全)과 한국문화선양(韓國文化宣揚)을 위한 업무발전(業務發展)에 공헌하게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